

고대진법과 『오위진법(五衛陣法)』의 구조적 특징

김 동 경*

1. 머리말
2. 구정법, 악기경, 팔진의 구조적 특징과 기(奇)·정(正)운용
3. ‘오위연진’의 구조적 특징과 오진법 체계
4. 맺음말 : 진법에 나타난 오행사상과 오진법 체계의 의미

1. 머리말

동서고금을 통틀어 문명이 모습을 드러낼 무렵의 전쟁은 이미 ‘조직적인 형태’를 지닌 사회적 행위로 자리 잡았다. 지리적 위치, 생활방식, 의식주 등 문화적 차이에 따라 전쟁터에서 나타나는 차별적인 전투방식은 그 무렵 인간의 사고방식을 전쟁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쟁이 ‘조직적인 형태’를 지닌다는 것은 이미 문명시대 이전부터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문명시대 구분을 위한 역사학적 관점은 역사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심이 되겠지만, 군사학의 입장에서는 좀 다른 방식의 기준이 요구될 것이다. 조직적인 전쟁의 수행, ‘대형(Military Formation)’을

* 공군소령, 러시아 합동군사대 재학 중

유지하여 전투에 임하였는지의 여부이다. 서양에서는 신석기시대의 동굴 벽화에 있는 인간들의 사냥장면을 대형에 의한 조직적인 전투라고 해석하고 ‘군사적 구분선’의 개념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¹⁾ 그러나 이 동굴벽화에 나타난 전투대형은 단지 종대나 횡대대형 정도로 전투대형으로써의 의미가 깊지 않다. 비슷한 시기 중국에서는 맹수사냥을 위한 고대의 대형으로 추정되고 있는 ‘하도(河圖)’와 ‘낙서(洛書)’라는 화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서양의 종대나 횡대의 개념을 넘어 심오한 이치를 담고 있어 고대 동양철학 및 학문 발전의 근간이 됨과 아울러 중국 역사상 최초로 나타난 조직적인 전투대형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도와 낙서는 동양에서의 ‘군사적 구분선’으로써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도’와 ‘낙서’의 문형을 통해 황제헌원은 구정(九井)의 법을 세워 구군팔진(九軍八陣)과 ‘악기경(握機經, 握奇經)’을 만들었고, 제갈공명은 하도의 팔괘모양을 본떠 팔진(八陣)으로 변화시켰으며, 팔행방진(方陣)의 유법은 당대에 이정에 의해 원진(圓陣)의 형태로 변화된 육화진(六花陣)으로 발전되었다. 구정법으로 알려진 황제의 ‘구군팔진’과 ‘악기경’은 사실상 진법의 원류가 되고 있다.

무경칠서를 통해서나 역대 진법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악기경(握機經, 握奇經)’은 고대 중국 병학사상의 근본원리로 파악되고 있다. ‘악기’의 제도를 근본으로 주나라에서는 ‘정전법(井田法)’, 춘추시대 제나라는 ‘사마법(司馬法)’, 그리고 한대에는 ‘팔진’과 당대에는 ‘육화진’으로 진법의 맥이 이어지고 있었으나, 이후에는 악기경의 근본원리를 상실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러므로 후대의 진법 연구는 ‘악기경’의 근본원리에 대한 연구를 중점으로 이루어졌다. 중국에서는 당대 독고급(獨孤及), 송대 자호왕씨,

1) ‘군사적 구분선’이란 원시적인 전쟁과 조직화된 전쟁을 구분하는 의미인데, 스페인 르방지 역의 동굴벽화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활로 함께 사냥하는 장면들과 더불어 다른 사람에 대응하는 그림이 나타난다. 이 그림으로 신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대형을 통한 조직적인 전투를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더 웨일, 『전쟁의 기원』, 이춘근 옮김, 서울: 도서출판 인간사랑, 1990, 31~35쪽.

명대 장엽 및 척계광 등이 ‘악기경’의 근본원리와 ‘팔진’의 재해석에 중점을 두어 고대 진법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병이 중시되었던 조선전기에서 화약무기의 비약적 발전과 보병이 중심이 되고 있었던 조선후기의 진법연구 역시 ‘악기경’의 근본원리를 따르고자 하였다. 정도전의 『진법』이 중국 역대진법과 고려시대 진법을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여 오진제도를 본받았고, 『진도법』, 『계축진설』은 오진법을 바탕으로 하부 편제를 세부적으로 발전시켰다.²⁾ 『오위진법』은 오진체계를 통해 군편제와 동원체제의 일원화를 위한 기본개념을 제공하고, 진의 구조도 ‘일위독진(一衛獨陣)’과 ‘합진(合陣)’의 형태를 ‘오행진(五行陣)’의 형태로 단일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오위연진(五衛連陣)’의 법칙이 ‘하도(河圖)’, ‘낙서(洛書)’, ‘팔진(八陣)’의 이치를 따르고 있다고 『오위진법』의 서문에 서술하고 있어 조선전기의 진법이 고대진법의 근본이치를 본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효종대의 안명노는 『연기신편』에서 ‘하도낙서’가 ‘악기경(握奇經)’ 또는 ‘구군진(九軍陣)’으로 이후 제갈공명의 ‘팔진(八陣)’으로 발전되었으나 그 병법의 이치는 변함이 없다고 평가함과 아울러 역대 중국의 진법연구의 오류를 지적하였고, 정조대의 양완 또한 『악기도설』을 통해 화약무기의 중요성이 대두되던 시기에서도 진법의 이치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안명노는 임진왜란 이후 들어온 척계광의 전법이 대보병 전투에 적합하나 대기병 전투에는 부적합하여 조선전기 『오위진법』으로 회기할 것을 주장했다. 『연기신편』을 통해 안명노가 주장하고자 하는 주 내용은 보병의 방진에만 적용할 수 있는 척가 진법의 오류를 지적하고, 고대 중국 진법의 이치를 파악하여 조선의 현실에 맞도록 수정한 진법이 조선

2) 정도전은 「강무도」, 「오행진출기도」, 「팔진삼십육변도보」, 「태을칠십이구도」 등을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실체가 불분명하여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다만, 『진법』, 『진도법』, 『계축진설』이 군사교련을 위한 교범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진도(陣圖)를 편찬한 이유는 동양고대진법(악기경, 팔진도, 육화진 등)에 대한 재해석의 측면과 이를 응용하여 정예병을 대상으로 실전에 적용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오위진법』, 『병장설·진법』, 1983, 서문.

전기의 『오위진법』이기 때문에 오위진법을 재조명하자는 것이다.

『오위진법』이 고대진법의 원리를 계승하고 있다는 것은 진법의 원칙과 기정운용의 측면에서 그 원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지 진법자체의 구조가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므로 진법의 구조적 측면에서 구군진에서부터 오위진법까지의 연계성을 찾기 위해서는 구정법, 악기경, 팔진의 구조가 어떻게 오위진법에 투영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구정법, 악기진, 팔진은 모두 8개의 진을 가지고 있으나, 오위진법의 구조는 오진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오위진법의 구조와 기정운용을 통한 병력운용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또한 임진왜란 전까지의 조선은 중국병학의 이치를 파악하기 위해 ‘손자’, ‘오자’, ‘사마법’, ‘육도’, ‘삼략’, ‘위료자’, ‘이위공문대’ 등 일곱 가지 병서를 ‘무경칠서’라 하여 가장 중요하게 간주해 왔다. 그러므로 진법에서 오위진법까지 발간된 병서에서도 그 이치가 내포되어 있을 것으로 무경칠서에 나타난 병학사상 또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오위진법』에 관한 연구는 병서의 큰 틀과 군사교리의 의미에서 시작되어³⁾, 조선초기 대외적 상황에 따른 군사전통 및 군사훈련의 변화와 진법의 역할에 대한 연구⁴⁾, 태조대 군사력 재건시 진법의 구조적 유기성과 오진체제에 따른 군제 확립에 대한 연구로 진행되었다.⁵⁾ 최근에는 ‘이시애의 난’ 당시 발생한 전투에서 적용된 오위진법과 다양한 진법을 소개하고 전투에 동원된 병력과 병종의 분석을 통해 국가방어를 위한 전략적 측면과 병력동원체제에 적용된 오위진법의 의미를 재조명 하려는 연구가 시도되었다.⁶⁾ 그러나 오위진법이 내포하고 있는 도식적인 부분이나 진법의 구조적 의미, 그리고 진법에 의해 수행되는 병력운용이나

3) 노영구, 「조선후기 병서와 진법의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4) 김동경, 「조선초기의 군사전통 변화와 진법훈련」, 『군사』 제74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0.

5) 김동경, 「정도전의 진법과 태조대 군사력 재건」, 『한국문화』 제54권, 서울대규장각 한국학연구소, 2011.

6) 김동경, 「이시애의 난에 나타난 전법과 오위진법의 영향」, 『역사와 실학』 제49호, 서울: 역사실학회, 2012.

전술적인 측면에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오위진법』에 나타난 진법 전체의 내용을 풀이하는 작업은 상당히 많은 시간과 지면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부대에 적합한 ‘오위연진’의 구조와 기·정운용에 대한 내용분석에만 국한하고 ‘무경칠서’ 및 ‘중국 고대진법’, 그리고 조선의 진법서 중 『연기신편』을 중심으로 진법에 나타난 대부대 및 소부대 전법의 성격을 살펴 ‘오위연진’의 구조와 기·정운용의 특징, 그리고 오진법 체계의 의미와 그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구정법, 악기경, 팔진의 구조적 특징과 기(奇)·정(正)운용

1) 구정법(九井)에 나타난 진법의 기본개념

구정법은 황제 현원이 치우를 격파한 이후 수립한 제도로 전해진다. 구정법의 유래와 진법에 대한 상관관계는 『연기신편』⁷⁾과 『이위공문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옛날 황제가 치우를 격파하고 처음으로 구정(九井)을 세워 900무(畝)를 1정으로 하여, 그 중앙을 공전으로 하였는데, 구군을 1정으로 하고 중앙을 악기(握機, 握奇)로 하니, 구군팔진의 법이 대개 이에서 비롯되었다.”⁸⁾

7) ‘연기신편’은 조선중기의 문신 안명노가 저술한 병서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치치면서 조선의 병학으로 자리잡은 ‘기효신서’와 ‘병학지남’이 갖는 중국병법의 한계를 지적함과 아울러 구군진과 악기경의 기본원리를 통해 제갈공명의 팔진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여 역대의 진법과 무경칠서의 내용을 테마별로 재구성하였다.

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기신편』, 2010, 65쪽.

『연기신편』에서는 구정법의 설립시기와 구군팔진의 유래에 대해 나타나고 있다. 흔히 알려져 있는 ‘탁록대전’은 현원이 치우를 격파한 전투로 현원으로 대표되는 화족과 치우로 대별되는 동이족의 전투로 이 전투에서 화족이 승리하여 동이족을 몰아내는 계기가 된다. 구정법은 동이족을 몰아내고 화족이 중국의 본토를 장악한 이후 수립된 토지제도 또는 지방 통치제도로 ‘증화사상’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구정법의 특징은 토지를 정(井)의 모습으로 구분한 제도로 1정의 넓이를 900무(畝)로 정하고 있다. 1무(畝)는 100보(步)에 해당하는 넓이로 1보가 6척(尺)×6척임을 감안할 때, 900무는 9만보×9만보로 1정은 현재의 도량으로 환산하면 163.8km×163.8km에 해당한다. 넓이보다 정이라는 구조적 특징에 초점을 맞추면, 구정의 제도는 대략 164km×164km 넓이의 블록 9개를 모아놓은 구조로 가로, 세로 약 500km 길이의 토지를 정(井)의 모습으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위의 사료에 따르면 당시 중앙, 지방 또는 영토의 경계 내에서 행하던 토지제도의 구조적 개념이 군사적 측면으로 투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법의 구조적 측면에서의 ‘구정법’은 중군 ‘악기’를 중심으로 8개의 부대가 각 방위에서 방진을 이루는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신이 살펴보건대, 황제가 맨 처음 구정의 법을 만들고, 이에 따라 병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토지를 구획함에 있어 1개 정(井)에는 총횡으로 네 개의 길을 내어 9등분으로 구획하고, 중앙의 한 구역은 공전으로, 나머지 여덟 구역은 사전으로 삼아, 여덟 가호가 이를 경작한 다음, 공전의 수확은 나라에 바치고 사전의 수확은 여덟 가호가 각각 나누어 갖게 하였습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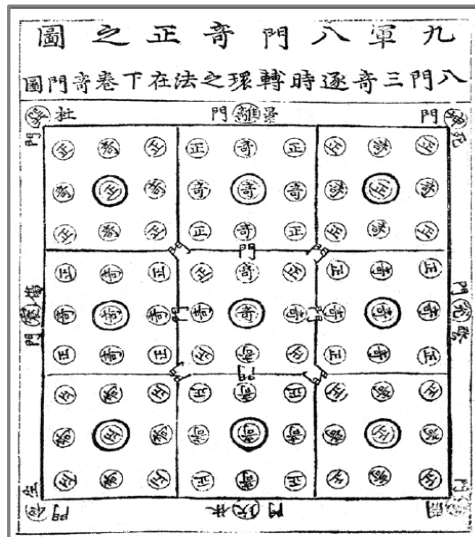
“정전의 천맥(阡陌)은 바로 구군의 벽루(壁壘)다. 고법(古法)에 전거(戰車)를 사용하여 성(城)으로 하고, 매 진에는 8문(八門)을 설치하니, 그것이 이른바 원문(輓門)이다.”¹⁰⁾

9)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이위공문대」, 「무경철서」, 1987, 361~362쪽.

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기신편」, 2010, 66쪽.

『이위공문대』에서 나타난 구정법 또한 군사적 측면보다는 농업사회의 생산 및 조세를 위한 토지제도에서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연기신편』에서는 진법의 경계에 대한 유래를 설명하고 있는데, 정(井)을 구분하는 기준을 “천맥(阡陌)”이라 언급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각 구역의 경계 근방에 위치하는 산이나 하천과 같은 지형에 따라 경계를 규정하였다. ‘천맥’과 같이 지형과 관계된 토지구획 개념이 군사적으로 적용되어 진법의 외벽을 벽루, 성채 또는 수레를 활용하게 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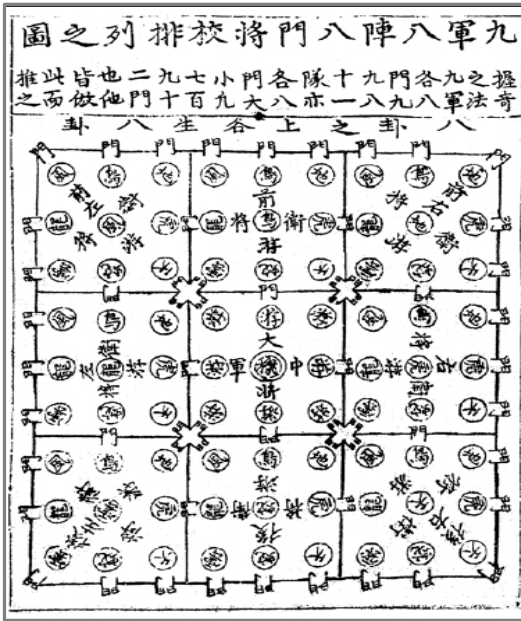
구정법의 구조와 동일하게 구군팔진은 9개의 부대로 1진을 이루는 진법이다. 대장이 중앙에 위치하고 중앙을 제외한 나머지 8방위의 지역에 각각의 부대를 배치시켰으며, 각각의 방위를 담당하는 부대 역시 구정의 원리에 의해 각 방면의 위(衛)와 8개의 통(소부대)으로 편성된다. ‘구군팔진장교배열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 8위의 명칭이 천(天)·지(地)·풍(風)·운(雲)·용(龍)·호(虎)·조(鳥)·사(蛇)로 부여되어 있으며, 각 위(衛)를 이루고 있는 8개의 통(統) 또한 같은 명칭으로 같은 방위에 배치되어 있다. 유군 또한 각 위에 동일하게 분속된다. ‘구군팔진장교배열도’와 ‘구군팔진기정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팔괘에 비유하여 같은 방위에 위치한 위와 통 모두 같은



〈그림 1〉 구군팔진기정도(구정법) 『연기신편』

11) 안명노는 ‘구정법’과 주대의 ‘정전법’을 동일시 하고 있어 ‘구정법’에 대해 서술하면서도 ‘정전’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의미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을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명칭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기(奇)·정(正)의 역할도 동일하게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¹²⁾



〈그림 2〉 구군팔진장교배열도(구정법) 『연기신편』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적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 부대가 정병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 양익에 해당하는 인접부대가 기병이 되어 서로 구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군의 법은 대장이 중앙에 위치하여 오로지 기고를 주관하고, 사면 팔향의 접촉처를 머리로 하여 적이 그 중앙을 찌르면 두 머리가 함께 구하니, 이는 술연의 형세이다.”¹³⁾

12) 구군진이 팔괘를 본떴다 하는 것은 8개 부대가 8방위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고, 64괘를 본받았다고 하는 것은 8개의 부대 각각 8개의 부대로 구성되어 같은 이치로 8방위에 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법서에서 나타난 팔괘는 음양사상의 측면보다 팔괘의 모양에 따라 부대를 배치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1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기신편』, 2010, 66쪽.

‘구군팔진도’에 나타난 지정운영은 자연현상인 ‘천지풍운’이 정병(正兵)을 맡고 동물에 해당하는 ‘용호조사’가 기병(奇兵)을 담당한다. 방진의 4모서리를 담당하는 정병의 역할은 적과 먼저 접촉하는 부대이고, 진의 전후좌우를 담당하는 기병은 정병을 도와 적을 패주시키는 임무를 도식화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사료는 지정의 병력운용이 적의 공격

솔연이란 상산에서 사는 뱀의 이름으로 그 뱀의 머리를 치면 꼬리가 달려들고, 꼬리를 치면 머리가 달려들며, 허리를 치면 머리와 꼬리가 한꺼번에 달려든다는 전설의 동물이다. 솔연의 움직임에서 짐작할 수 있는 전술은 공격과 방어시 진의 구조를 통한 병력운용 방법이다.¹⁴⁾ 전장의 상황에 따라 적의 공격방향을 예측할 수 없을 경우 처음 적의 공격을 받는 진이 정병이 되어 적과 조우하고 있는 동안 그 양옆의 진이 양익이 되어 적군과 교전을 벌이는 방식을 응변책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같은 원리를 ‘구군팔진도’에 적용하면 전층의 몸통에 해당하는 ‘조진(鳥陣)’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 조진이 정병(正兵)이 되어 수비를 하는 동안 머리와 꼬리에 해당하는 ‘지진(地陣)’과 ‘풍진(風陣)’이 기병(奇兵)이 되어 적을 공격하고, 머리에 해당하는 지진이 먼저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꼬리에 해당하는 조진(鳥陣)과 호진(虎陣)이 기병이 되어 지진을 구원하게 되도록 진이 운용됨을 알 수 있다.

진법에서 기정운용은 진에 배치된 부대의 병력운용과 진에 의한 조직적인 전법을 나타내는 것으로 진의 전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무경칠서에서는 정병과 기병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정의하고 있진 않으나 대체로 정병의 역할은 정공법이나 적과 먼저 접촉하는 부대를 지칭하고, 기병은 기습공격이나 기만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나 행위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역할을 처음부터 구분하기보다는 지휘관의 판단이나 임기응변에 의해 변화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구군진의 기정운용을 풀이한 안명노 역시 무경칠서가 발간된 이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구군진의 기정운용 분석에 있어 무경칠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구군팔진도상에서 기와 정을 각 방면의 위와 통에 일정하게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운용을 위한 경제체제가 각 지방의 운영에 적용되어 있는 원리와 같이 군사적으로도

14) 병력운용 측면에서의 솔연에 대한 비유는 중국의 무경칠서를 비롯하여 조선후기에 이르는 병서에 자주 등장하고 있어, 동양의 기본적인 전법 내지는 진의 구조를 통한 병력운용의 기본개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진의 기정운영과 소진의 전술을 일원화하여 진의 지휘체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구군팔진’은 『연기신편』의 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것으로 ‘구정법’에 의한 진법의 유래, 진법의 구조, 그리고 술연의 비유를 통한 기정운영의 측면만을 다루었다. 그 주된 내용은 진법의 근본원리가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토지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구조적 측면으로는 하나의 진이 8개의 대진으로 나누어 있고, 8개의 대진 또한 각기 8개의 소진으로 구성되며, 술연의 비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서로 인접한 3개의 부대가 서로 협동하여 대응하는 기정의 운용방법이라 할 수 있다. ‘구군팔진’에 나타난 대진과 소진으로 구분되는 진법의 이중구조, 술연에 비유된 진법의 기정운영, 그리고 중군의 역할을 하는 ‘악기’의 구조와 군사적 기능은 ‘악기정’과 ‘팔진’의 구조와 병력운용 방법에 원칙을 제공하고 있어 이후의 진법의 이해를 위한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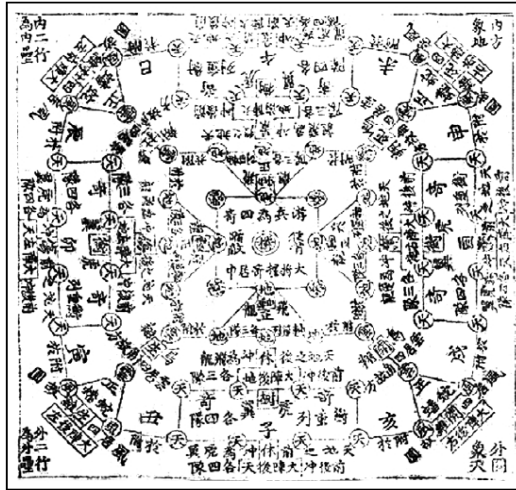
2) 기정운영과 명칭해석을 통해 살펴본 악기정의 구조적 특징

악기정은 황제(黃帝)가 풍후(風后)로 하여금 편찬도록 한 고대의 병법서로 안명노는 『연기신편』에서 ‘악기정’이 이정에 의해 처음 세상에 소개되었으며, 이후에는 그 이치가 전해지지 않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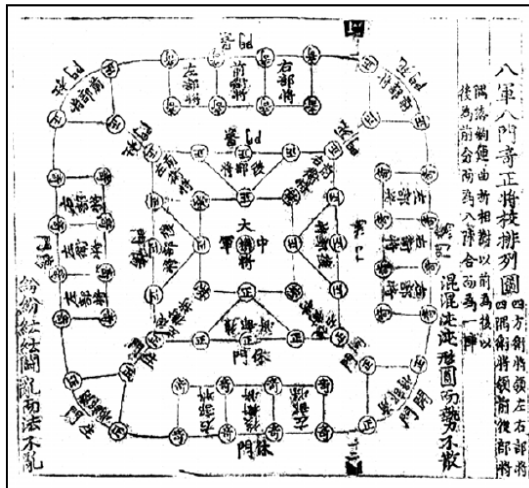
“4개의 진을 정병으로 하고 4개의 진을 기병으로 하며, 8개의 진에 소속되지 않는 여기(餘奇), 즉 중군(中軍)을 악기라 한다 하였습니다.”¹⁶⁾

15) 안명노는 『연기신편』에서 ‘구군팔진’의 기본원칙을 통해 ‘악기정’, ‘팔진’, ‘육화진’으로 진의 모습은 변화되나 그 이치는 변화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안명노가 주장하고 있는 구군팔진의 기본원칙은 첫째, 중군을 중심으로 8개의 진을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둘째, 기정운영을 위한 위 및 통 배치의 타당성. 셋째, 오진에서 팔진으로 변화 가능한 병력배치와 이에 대한 고려사항을 들고 있다. 안명노는 진법의 기본원리를 구군팔진의 법칙에서 찾았으며, 이를 통해 이후 언급되는 중국의 역대 진법연구가들의 오류를 바로 잡고 있다.

16)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이위공문대』, 『무경칠서』, 1987, 359쪽.



〈그림 3〉 팔군팔문장교배열도(악기진) 『연기신편』



〈그림 4〉 팔군팔문장교배열도(악기진) 『연기신편』

『이위공문대』에 나타난 ‘악기경’의 모습은 4개의 진을 정병(正兵)으로 하고, 4개의 진을 기병(奇兵)으로 하며, 8개의 진에 속하지 않는 중군(中軍)을 악기라 하여 붙여진 진법이라 서술하고 있어 그 기본 구조는 ‘구군

팔진'과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태종과 이정 of 대화내용에서 '악기경'이 포함하고 있는 진영수에 대한 문답내용으로는 이정이 설명한 8개의 진으로 이루어진 '악기경'의 구조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진영의 수가 다섯에서 시작하여 여덟에서 끝나게 된다 하였으니 무슨 말이오?(중략).. 동서남북과 중앙의 다섯 구역은 실병력을 포진하는 실지(實地)로 삼고 나머지 귀퉁이 네 구역은 실병력이 포진하지 않는 허지(虛地)로 삼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진영의 수가 다섯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홉 개의 네모꼴 중 중앙에는 대장이 위치하며, 나머지 여덟 구역에는 여덟 개의 부대가 사면을 에워싸고 방진을 칩니다. 이것이 이른바 여덟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¹⁷⁾

이정의 문답에 의하면 '악기경'의 구조 역시 '구군진'의 원칙에 따라 아홉 구역으로 이루어진 방진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서남북과 중앙의 다섯 구역은 실병력을 포함하는 실지로 삼고”라고 서술한 내용에서 '악기경'의 초기대형은 5개부대로 전후좌우와 중군으로 포진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나머지 여덟 구역에는 여덟 개의 부대가 사면을 에워싸고 방진을 칩니다”라고 대답한 내용에서는 중군을 중심으로 팔방위에 각각의 부대를 배치시키고 있는 '구군진'과 동일한 진법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진영수가 다섯에서 시작하여 여덟으로 끝난다는 의미에 대한 이해가 '악기경'의 구조를 풀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

“먼저 유병을 내보내어 양단을 정한다. 유병은 대장의 악기병(渥奇兵)을 이르는 것으로 내진 네 모퉁이에 위치하여 사기(四奇)가 된다.”¹⁸⁾
 “무릇 진의 전면과 후면, 좌측과 우측에는 각기 양단이 있고, 전면과 후면이 정해지면 유병이 먼저 나아가 그 사방에 양단을 형성한다. 그런

17) 앞의 책, 360~362쪽.

1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기신편』, 2010, 73쪽.

다음에 8진은 각기 위치와 순서를 나누어 대열을 이룬다. 하늘에는 형이 있고 땅에는 축이 있다. 악기의 법에는 하늘은 외곽에 위치하여 형이 있으며 땅은 내곽에 위치하여 축이 있다.”¹⁹⁾

악기진에 나타난 유병은 중군의 지휘를 받는 4통(統)으로 구성된 부대이다. 유병을 사기(四奇)로 표현한 것은 유병의 역할이 적과 정면대결하는 정병이 아니라 중군대장의 명령에 따라 어디든지 투입될 수 있는 정예부대임을 알 수 있다. 4기는 “팔군팔문장교배열도”와 “팔군팔문기정배열도”에서 나타나듯이 내진에 위치한 중군의 네 모서리에 위치한다. 유병의 첫 번째 임무는 중군에 위치하여 대장을 보좌하다가 진을 칠 때, 동·서·남·북으로 먼저 나아가 전·후·좌·후 4방을 담당하는 부대의 위치를 선점하고, 사주경계를 통해 적의 기습에 대비하는 것이다. 진을 치고 아직 안정되지 못했거나 막사 짓기가 끝나지 않은 시기에 예기치 못한 적의 기습에 대비하는 것이다.²⁰⁾

중군을 제외한 4개(衛)의 주력부대가 동·서·남·북 4방위에 포진하면, 나머지 4개부대는 외진의 네 모서리에 자리잡는다. 이때 4방위에 포진한 주력부대는 하늘(天)에 해당하며, 내진과 4우위에 전개한 부대는 땅(地)에 소속된다.²¹⁾ 악기경의 외진에 위치한 부대의 대형은 하늘이기 때문에 오행사상에 따라 전체적으로 원진으로 배열되고 그 역할 또한 기병(奇兵)이 된다. 같은 원리로 내진은 땅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진과 정병의 임무를

19) 위의 책, 74쪽.

20) 악기경에 나타난 유병의 역할은 『진도법』에 나타난 유군의 역할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진도법』에 나타난 유군의 모습은 행군중인 부대가 진을 칠 때, 유군을 사방으로 보내 사주경계를 통해 적의 기습이나 지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이후 진이 완성되면 본대로 복귀하도록 한다. 오위를 주 병력으로 하는 『진법』, 『진도법』, 『계축진설』, 『오위진법』의 유군의 역할은 악기경에서 나타난 유병의 임무와 비슷한 행태를 띠고 있다. 이는 조선전기의 진법이 중국의 역대진법의 장점을 조선의 실정에 부합되도록 변형하여 적용하고 있는 근거가 된다.

21) 이정은 방진은 정병, 원진은 기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방진은 보법에 바탕을 두었으며 땅을 상징하기 때문에 모가 났고, 원진은 선회하여 운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하늘을 둥글게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정이 해석한 악기경의 모습은 『연기신편』에 나타난 악기경의 구조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여하고 있다. 외진에 위치한 4위(衛)는 각기 8통(統)으로 구성되고, 네 모서리에 위치한 4위는 각각 4통으로 구성되는데, 이 4위($4 \times 8 = 32$ 통)와 4위($4 \times 4 = 16$ 통)의 병력은 구조적으로는 외진에 속한다. 내진 또한 4위($4 \times 4 = 16$)와 4기(유병)의 병력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중군의 규모를 구분함에 있어 이정은 “4개의 진을 정병으로 하고 4개의 진을 기병으로 하며, 8개의 진에 소속되지 않는 여기(餘奇), 즉 중군(中軍)을 악기라 한다”라고 하여 하늘(天)에 해당하는 4기(奇)와 바람(風)과 구름(雲)에 속한 4정(正), 즉 외진 8위를 8진의 주체로 보고, 중군에 속한 땅(地) 16통과 유병 4통을 악기병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사료는 이정이 구분한 악기의 병력구조와 상이한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방의 위장(衛將)은 좌우의 부장을 영솔하고 사우의 위장은 전후의 부장을 영솔한다. 우(隅)는 구불구불하게 휘고 꺾여져서 서로 마주하니, 전을 후로 하기도 하고 후를 전으로 하기도 하며, 이를 나누어서 8진으로 하기도 하고 합하여서 일진(一陣)으로 하기도 한다.”²²⁾

위의 사료는 악기정에 관한 내용 중 중군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다. 사방의 위장은 하늘(天)에 해당하는 좌·우부를 지휘하고, 사우의 위장은 바람(風)과 구름(雲)에 해당하는 전·후부를 지휘하나 “전을 후로 하기도 하고 후를 전으로 하기도 하며 이를 나누어서 8진으로 하기도 하고 합하여 일진으로 하기도 한다”라는 내용에서 사우위의 부대를 사방위와 함께 외진을 이루는 병력으로 볼 수도 있고, 사우위와 중군을 합하여 1진으로 보기도 함을 알 수 있다. 안명노는 이정이 중군의 규모를 중군본대와 악기병으로 편성한 부분에서 더 나아가 네 모서리의 4우위 또한 중군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진의 구조적 측면에서 중군과 사우위가 지축에 의해 땅(地)으로 연결되어 있고, 4우위의 병력이 4방위의 병력

2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74쪽.

보다 적기 때문에 사우위와 중군의 역할이 보다 긴밀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²³⁾ 결과적으로 이정이 악기경을 보는 관점은 8군 이외의 군을 중군으로 삼는 것으로 악기병이 중군의 지휘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중군의 규모나 역할을 작게 상정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안명노는 네 모서리에 위치한 4위와 악기병까지도 중군에 포함시키고 있어 중군의 역할이 악기병의 범위를 넘어 진의 전체적인 구조와 작전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군의 역할에 관한 내용은 악기경의 명칭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황제의 방법을 세상에서 악기경(握機經)이라 하기도 하고, 악기경(握奇經)이라고도 하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오? 기의 음이 기(機)이므로 기(機)자로 쓰기도 하는데, 그 뜻은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4개의 진을 정병으로 하고, 4개의 진을 기병으로 하며, 8개의 진에 소속되지 않은 여기, 즉 중군을 악기라 한다’ 하였습니다. 여기(餘奇)의 기(奇)는 나머지란 뜻인데, 기(奇)의 음이 기(機)이므로 악기를 악기, 즉 작전기밀을 장악하고 있다는 뜻으로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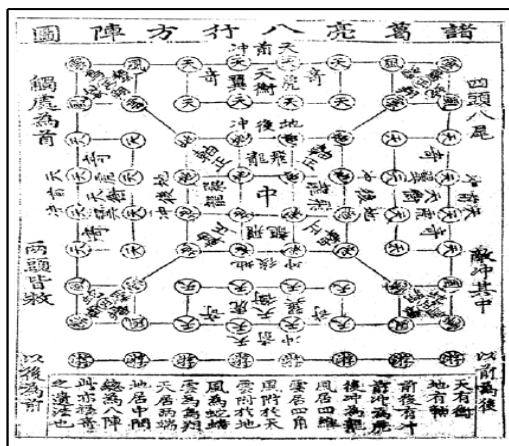
위의 사료에 따르면 기의 의미에 따라 중군의 규모가 달라짐 또한 유추할 수 있다. 첫 번째 기(奇)의 의미는 ‘8개진에 소속되지 않은 여기’라는 뜻이다. 이는 8진에 소속되지 않은 악기(握奇)병의 영향으로 악기의 명칭이 악기경(握奇經)이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즉, 악기병이 중군에 소속됨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앞서 설명한 이정이 한정된 중군의 규모(중군본대+악기병 4통)와 같음을 알 수 있다.

23) 악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천·지·풍·운은 부대의 병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현상의 모습을 통해 8진의 유기적인 작전과 명령체통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늘에 해당하는 부대는 바람 및 구름과 함께 외진을 형성하여 사우에 해당하는 바람이 공격받으면 4방의 하늘이 이를 도와 적을 격퇴시키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내진으로 설명되는 땅은 사우로 지축을 형성하여 땅, 유병, 사우위간의 명령체통이 명확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땅에 해당하는 중군과 악기병 그리고 사우위를 하나의 진으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8진이 아니라 5진이 되는 것이다.

24)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이위공문대』, 『무경철서』, 1987, 360~36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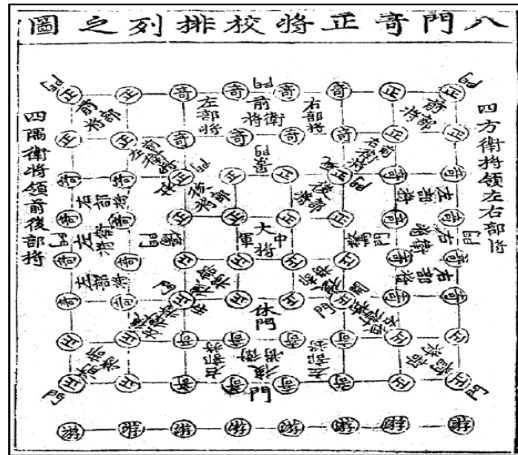
두 번째 기(機)의 의미는 ‘기(奇)의 음이 기(機)이므로’라고 한 것에서 유추할 때 작전의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작전의 측면에서는 앞서 악기경에 나타난 외진과 내진의 측면을 설명한 바와 같이 외진을 맡고 있는 4방위의 병력과 내진의 4우위의 병력이 서로 다른 전술을 부여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중군이 4우위와 악기병의 병력과 긴밀하고 유기적인 전술적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을 뜻한다. 결국 악기(握奇)는 악기병을 뜻하는 부대의 편제를 강조한 것이고, 악기(握機)는 중군이 펼칠 수 있는 기동과 전술적 측면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악기경의 구조적 측면에서 중군이 중군본대와 악기병만을 포함하는 8진 체제라면 처음 악기경의 구조를 설명하는 과정과 부합되지 않는다. 이정은 악기경이 본래 오진에서 시작한다고 하였고 그 끝이 팔진으로 끝난다고 설명하였으나 그中间的 과정을 모호하게 설명함으로써 그 실체를 확실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²⁵⁾ 중간과정에 대한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정의 설명과 안명노의 해석을 함께 참고해야 할 것이다.



〈그림 5〉 제갈량 팔행방진도 『연기신편』

25) 이정은 악기경을 구정법과 동일한 팔진의 구조로 설명하고 있으나, 그 설명과정에서 4우위를 허지로 삼아 실병력을 오진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팔진체제를 설명함으로써 오진과 팔진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 진법의 구조적 개념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 위의 책, 361~362쪽.



〈그림 6〉 팔문기정배열도 『연기신편』

‘오진에서 시작하여 팔진에서 끝난다’라는 의미는 진을 치는 과정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악기경의 구조적 측면에서 설명한 내용을 다시 보면, 진을 치기에 앞서 먼저 중군의 유병이 4방위로 나아가 위치를 잡게 된다. 이후 전·후·좌·우 4방위의 본진이 각 방위의 진을 치기 시작한다. 즉, 진을 치기 시작하는 것은 ‘오진에서 시작하여’라는 설명과 일치한다. 4방위의 병력은 실병력으로써 오진의 형태로 진을 완성한다는 것은 하늘(天)로 설명되는 외진을 완성시키는 것에 해당한다. 이후 유병은 중군으로 돌아오고 이후 중군에 속해 있던 4우위는 네 모서리로 펼쳐 땅(地)과 지축을 형성한다. 이는 내진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외진과 내진이 완성 되면 4방위와 4우위는 중군을 중심으로 팔방위를 형성하게 된다. 이는 ‘여덟에서 끝난다’라는 설명과 일치된다. 결과적으로 이정이 설명한 ‘오진에서 시작하여 여덟에서 끝난다’라는 내용은 악기경의 진을 구축하는 처음에는 중군에 4우위가 포함되어 있다가 4방위의 병력이 포진한 이후 중군의 4우위가 네 모서리로 전개하여 진의 설치가 끝나면 8진이 완성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 되는 것이다.²⁶⁾

26) 연기신편과 이위공문대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가 편찬한 무경철서

악기경에서 중군의 규모는 편제측면에서는 단순히 유병과 중군본진만을 뜻하는 것이나, 악기경의 구조에서 나타난 외진과 내진의 역할, 악기경의 명칭에서 나타난 기의 두 가지 의미, 그리고 진을 치는 과정에서의 오진과 팔진의 관계를 전술적인 측면으로 종합해 본다면, 사우위와 중군 본대 그리고 유병 4통으로 이루어진 큰 구조임을 알 수 있다. 8위의 위장이 각각의 부대를 지휘하는 편제상으로는 팔진체계를 따르고 있으나, 진의 전체구조와 작전측면에서는 4우위장은 중군의 지휘를 받고 있어 4방위와 중군으로 구분되는 오진체계를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정과 안명노가 설명한 중군의 규모는 내진의 중군과 4우위 모두가 지축에 의해 연결된 구조적인 측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악기경의 부대를 크게 5개로 작계는 8개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는 제갈공명의 팔진에도 영향을 미쳐 진의 구조는 조금 차이가 있으나 ‘사두팔미(四頭八尾)’라는 그 근본적인 전법에는 변함이 없이 연계되고 있다.²⁷⁾

3) 음양오행 사상의 역할과 오진법 구조의 확립

“삼군은 행군간에...(중략)...각 부대의 표지와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좌군은 청색바탕의 청룡기를, 우군은 백색바탕의 백호기, 전군은 붉은 바탕의 주작기, 후군은 검정바탕의 현무기를 사용하며, 중군은 황색 바탕의 초요기를 그 위에 세우고, 청룡·백호·주작·현무의 4개 부대기 치는 중군 초요기의 지휘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²⁸⁾

(362쪽)에 나타난 악기경의 구조는 오진속에 같은 형식의 오진을 배치시키도록 도식화 하였으나, 이는 악기경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황제의 구정법과 악기경의 구조를 혼동 또는 착오함으로써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앞의 책, 362쪽.

27) 사두팔미는 악기경의 기정운용과 같이 외진의 4우위의 4통이 정병을 4방위의 8통이 기병이 되어 방어하는 전법을 술연에 비유한 것이다. 팔진법과 악기경의 차이는 팔진을 팔행방진으로 만들어 상하좌우 모든 부대의 통수를 8로 통일하였고, 외진을 원진에서 방진으로 배치시켰다. 외진의 기정운용은 악기경의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며, 내진의 지축을 중심으로 4우위가 포진되어 있는 구조도 동일하다. 즉, 팔진법은 악기경의 구조를 더욱 단순화시켜 통일성을 더한 것이 된다.

28) 위의 책, 85~86쪽.

『오기병법』은 전국시대에 남겨진 진법서로 오기가 위나라로 망명한 이후 제작되었다.²⁹⁾ 「치병(治兵)」편에는 1군을 5개부대로 나누고 있고, 전체군은 3군으로 편성하고 있다. 춘추시대부터 3군의 부대편제는 큰 제후국이 편성하였고, 기타의 국가는 국력에 따라 2군 또는 1군으로 구성하였으나, 3군에서 1군까지 그 하부 편제는 5부대로 분속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³⁰⁾ 그러나 『손무병법』 「계(計)」편에서 전쟁의 승패결정 기본요소를 5가지로, 「모공(謀攻)」편에서 전쟁의 승리요건을 5가지로, 「형(形)」편에서 병법고려요소 또한 5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등 당시 병병가들이 사상적으로 숫자 5(五)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대와 한대는 음양오행을 통해 구축된 우주관을 특색으로 중국 철학 발전에 가장 중요한 시대로 평가된다.³¹⁾ 이러한 경향은 춘추전국이라는 혼란한 시기를 통일하고자 하는 상부에서 하부까지의 사상적인 노력이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의 순리와 순행이라는 덕목에 의해 당시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진 결과일 것이다. 현대에도 이해되지 않는 어떤 사건의 원인이나 결과에 대해서 자연의 섭리라는 측면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은 춘추전국시대에 형성된 음양오행의 세계관에 지금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진법에서 오행사상이 필요시 되고 있는 중요한 요소는 오행이 운행의 순서에 따르고 있는 바와 같이 각자가 담당하고 있는 자신의 직분과 직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다. 전투장비는 방패·창·모·검·궁의 5가지

29)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오기병법」, 『무경철서』, 59쪽.

30) 무경철서 중 손무병법, 오기병법, 사마법 등 춘추전국시대의 병서에 나타난 각 군의 하부편제가 5부대로 나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31) 이 시기에는 이미 5라는 숫자에 의해 천문·지리·역산·기후·관제와 복식 등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것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역까지 음양오행의 도식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리쩌허우, 『중국고대사상사론』, 정병석 옮김(경기도: 한길사, 2005), 331쪽. 특히 춘추전국시대에 음양오행 사상이 주를 이룬 이유는 중국 통일을 위한 제작백가 중 천자에서 평민까지 자연의 이치와 섭리를 깨닫게 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숙지시켜 제국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사상이 오행사상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당시의 사상이 유교이지만 오행사상이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유는 원만한 국가경영을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병기를 활용하여 원거리와 근거리 무기의 장점을 결합시키고, 같은 무기를 가진 5인(伍)이 한조가 되어 단결하여 싸우며, 1군은 전·후·좌·후·중의 5부대로 구성되어 중군의 명령을 따라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며, 각 부대는 적의 진형에 따라 예진·곡진·방진·직진·원진의 5진(陣)으로 변형시켜 전투에 임하는 것이 진법에 나타난 오행사상의 기초적인 개념이다. 병서에 나타난 음양오행사상은 군사적인 경험에 기원하여 생겨난 것이지 주술이나 논변에 의해 발견된 모순에서 기인된 것은 아니다.³²⁾

음양오행사상은 국가통일을 위한 사회문화적인 도구가 되었던 진법의 측면에서도 진의 구조, 진을 구성하고 있는 병력, 무기, 진형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 대까지의 진법에 나타난 오진법체계 “1군의 부대를 5개 부대로 구성한다”는 당시 병가(兵家)의 기본적인 개념이었을 것이나 이는 편제 구성 원칙의 한부분일 뿐, 진법의 측면에서는 편제에 의해 기인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별도의 고안된 방법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악기진이나 팔진에 의한 실제 전투대형은 방진으로 펼쳐진 8개의 소부대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오행의 원리에 부합되는 5가지 병기, 5명 단위(伍)의 최소편제, 1군을 형성하는 5부대(5위)가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음양오행 측면에서의 악기진과 팔진은 편제상으로 오진체제를 수립하여, 악기(握奇)라는 명칭으로 불릴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

32) 오행사상의 상생원리에 적합한 전투는 한산대첩이다. 견내량을 통해 공격해오는 왜군의 침자진(예진)에 대해 이순신은 학익진(곡진)을 펼쳤는데, 이는 화(火)는 물(水)을 이길 수 없는 오행의 수극화 원리에 부합되는 전투이다. 반면, 오위진법 「대열의」에서는 적의 학익진 공격에 대해 예진으로 중앙돌파를 시도하기도 한다. 이는 진법이 음양오행사상을 답습하기보다 실리추구를 위해 오행의 모순을 극복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3. ‘오위연진’의 구조적 특징과 오진법 체계

1) 오위연진에 나타난 ‘하도’와 ‘낙서’의 구조적 특징

태조대의 정도전은 역대 중국 및 고려시대의 진법과 군사제도의 장점을 취하여 보병훈련 교법의 성격을 지닌 『진법』을 편찬하였고³³⁾, 세종대 발간된 『진도법』과 『계축진설』은 정도전의 『진법』을 근간으로 하되 기병대형을 추가시켜 기병전술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³⁴⁾ 문종대 간행된 『오위진법』은 앞서 편찬된 진법을 근간으로 보병과 기병의 합동전술을 진법의 구조를 통해 발전시키고 있으며 진법의 구조가 ‘악기경’, ‘팔진’, ‘육화진’에 나타난 진법의 이치를 따르고 있음을 오위진법 서문을 통해 밝히고 있다.

“진법은 풍후가 악기경(握奇經)을 지은 뒤로, 제갈량과 이정 등이 그의 유법을 연구하여, 비록 때에 따라 팔진(八陣)이니, 육화진(六花陣)이니 하는 이름들을 붙인 적이 있었으나, 그 이치는 오늘날에 이르도록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³⁵⁾

오위진법이 고대진법의 이치를 따르고 있다고 했으나, 오위진법은 앞서 살펴본 중국의 고대진법과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구조적으로는 구정법, 악기경, 팔진의 부대구조는 8위로 구성되어 있고, 각 위에 속한

33) 정도전은 여말선초 지방군의 동원제도는 유지되고 있었으나, 동원된 병력에 대한 실질적인 훈련을 주요 문제점으로 인식하여 오(五), 십(什)이라는 소규모 대형중심의 진법훈련을 통해 지방 동원병의 정예화를 모색했다. 김동경, 「정도전의 진법과 태조대 군사력 재건」, 『한국문화』 제54권, 서울: 서울대규장각 한국학연구소, 2011, 20~26쪽.

34) 진도법과 계축진설에서는 정도전의 진법에 나타난 오와 십이란 소규모 편제에서 벗어나 10명단위의 소대, 25명을 위한 중대, 50명을 위한 대대라는 새로운 편제개념을 제시함과 동시에 기병을 위한 대형을 별도로 신설하여 전술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진도법과 계축진설에 나타난 진법의 발전은 태종대부터 시작된 여진족의 북방침입에 대응하기 위한 보기 합동전술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35)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오위진법』, 『병장설·진법』, 서울: 1983, 서문.

통의 수가 4방위는 각 8통, 4우위는 각 4통으로 구성되었음을 앞서 설명하였다. 반면 오위진법의 부대구조는 크게 5위로 각위는 5부, 각부는 4통, (5위-5부-4통) 총 100통으로 균일하게 편제되어 악기진과 팔진의 병력구성과는 상이하다.

오위진법에 나타난 결진법에는 오위연진(五衛連陣), 합진(合陣), 일위독진(一衛獨陣)의 세 종류가 있다. 이 중 오위연진과 합진은 외진·간진·내진의 구조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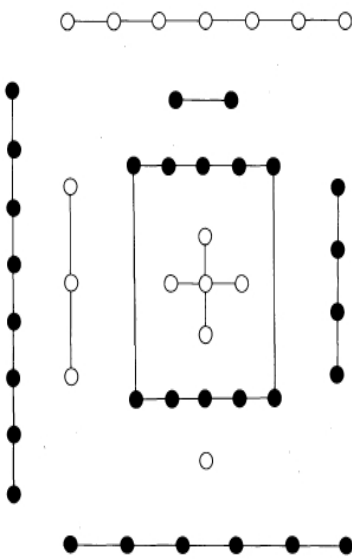
“연진(連陣)의 외진(外陣)은 하도의 6·7·8·9의 수요, 내진(內陣)은 5와 10의 수이며, 간진(間陣)은 1·2·3·4의 수이니, 이것은 하도의 문형을 본 받은 것이다.”³⁶⁾

“합진(合陣)의 중위가 내·외를 싸고 있는 것은 낙서의 5와 10이 내·외의 수를 싸고 있는 것이요, 4위(衛)가 사방으로 붙어 있는 것은 낙서의 1·6, 2·7, 3·8, 4·9의 수가 각각 자기의 방위에 따라 붙어 있는 것이니, 이는 낙서의 변화를 본받은 것이다.”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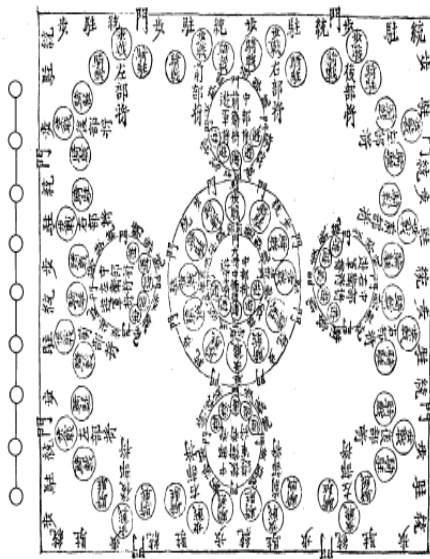
오위진법의 서문에는 오위연진을 외진·간진·내진으로 이루어져 ‘하도’와 ‘낙서’의 구조를 본받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하도’는 고대 중국 황하에서 나온 용마(龍馬)모양의 화석에 그려진 도형이고, ‘낙서’는 고대 중국 낙수에서 출토된 거북무늬 화석으로 ‘하도’와 ‘낙수’ 모두 고대 맹수잡이를 위한 사냥군들의 전투대형으로 추정되고 있다.

36) 위의 책, 서문.

37) 위의 책, 서문.



〈그림 7〉 하도(河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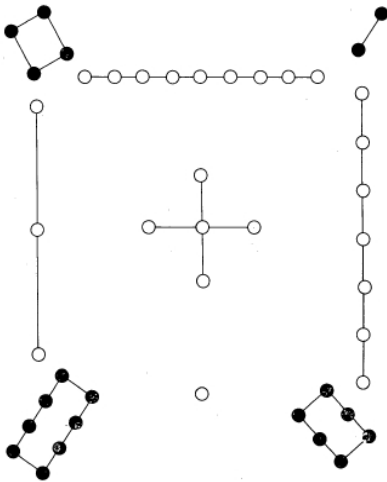


〈그림 8〉 오위연진 『오위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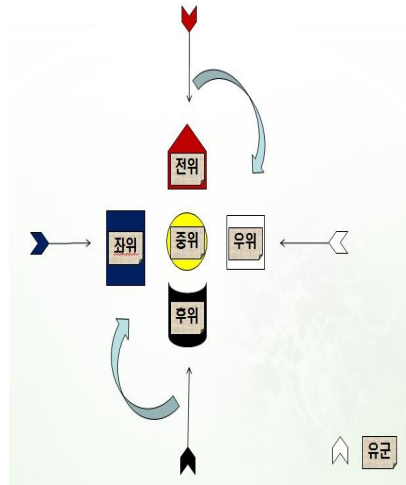
‘하도’와 ‘낙서’는 학자에 따라 태극이나 음양오행의 사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진법에 응용되고 있는 부분은 병력배치를 위한 기본구조로 하도는 오위연진, 낙서는 합진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오위연진은 전·후·좌·우·중위의 병력이 하나로 합쳐진 진으로 중위는 원진으로 변하지 않고, 4방위의 병력만 간진과 외진으로 포진한다. 간진에 해당하는 부대는 4방위의 중부와 유군에 해당하며 중부를 제외한 4부는 각 방위의 외진으로 배치한다.³⁸⁾ “연진의 외진은 6·7·8·9의 수요, 내진은 5와 10의 수이며”라고 설명한 것은 전·후·좌·우 4위의 병력으로 외진을 형성하고, 5에 해당하는 중위의 중부와 유군 그리고 10에 해당하는 중위의 4부병력이 형성하는 내진의 구조를 설명한 것이다. “간진은 1·2·3·4의 수이니, 이는

38) 오위진법은 1군을 오위로(전·후·좌·우·중위)으로, 각 위는 5부로 각 부는 4통으로 구성된다. 이 중 중위는 원진을 유지하나 외진의 병력은 중위의 지시에 따라 예·방·작·곡·원진의 형태를 갖는다. 그림 8은 외진이 방진의 형태를 갖춘 오위연진이다.

하도의 문형을 본받은 것이다”라고 설명한 것은 1·2·3·4는 전·후·좌·우위의 각 중부와 유군병력으로 각 방위 외진의 뒤에서 수행하는 군령부대와 예비대의 위치를 의미한다.



〈그림 9〉 낙서(洛書)



〈그림 10〉 오위합진

“합진의 중위가 내외를 싸고 있는 것은 낙서의 5와 10이 내외의 수를 싸고 있는 것이요”라고 설명한 것은 앞서 설명한 중위의 병력 포진과 관계된 것으로 중위의 중부와 유군이 중앙에, 나머지 중위 4부위의 병력이 중위 중부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형상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4위가 사방으로 붙어 있는 것은 낙서의 1·6, 2·7, 3·8, 4·9의 수가 각각 자기 방위에 따라 붙어 있는 것이니, 이는 낙서의 변화를 본받은 것이다”라고 설명한 것 또한 중위를 중심으로 전·후·좌·우위의 병력이 포진하고 있는 형상을 의미한다. 다만 1·6, 2·7과 같이 각 방위의 숫자를 배치시킴으로써 네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는 2·4·6·8에 해당하는 부대가 1·3·7·9의 위치와 연결되고 있음을 부연하고 있다.

‘하도’와 ‘낙서’의 구조를 통해 알 수 있는 『오위진법』의 특징은 하도가

원칙(經)으로 낙서가 변칙(變)으로 설명될 뿐, 오위연진과 합진의 구조는 크게 차이가 없다. 다만 오위연진과 합진이 외진, 간진, 내진의 3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한 병력 배치의 기본이 ‘하도와 낙수’의 원칙을 따르고 있어 오위진법은 구군진, 악기진, 팔진이 외진과 내진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와 다른 구조를 갖는다. 그러므로 오위진법 서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악기정과 팔진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한부분은 오위진법이 역대진법의 구조적 측면이 아닌 다른 원칙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대열의」에 나타난 주(主)·전(戰)통과 기(奇)·보(步)통을 활용한 기정운용

구군진과 악기진 그리고 팔진은 도식을 통해 기정운용에 대한 대강을 나타내고 있음을 앞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오위진법에는 기정운용을 도식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아 진을 통한 전투의 모습을 추측하기 어렵다. 다만, 오위진법에 서는 병종과 그 역할을 구분하여 도식하고 있고 「대열의」에 나타난 소부대 기동요령을 통해 오위진법의 기정운용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오위진법의 병종구분은 기통(奇統)과 보통(步統)으로, 역할구분은 주통(主統)과 전통(戰統)으로 나누어 있다. 통(統)은 오위진법의 중간편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오위진법은 위-부-통-여-대-오의 순으로 편제를 구분하고 있으나 오위진법에서 기준을 삼고 있는 실질적인 편제는 통에 해당한다.³⁹⁾ 기통은 기병으로 구성된 부대를 뜻하고, 보통은 보병으로 구성된 부대이다. 기통과 보통은 각 부(部)에 4통으로 구성되는데, 기병 2통과 보병 2통씩 균일하게 배분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통으로 합산한

39) 오위진법에서 통을 편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통의 병력을 여(125인), 대(25인), 오(5인)로 편성함에 따라 오위 전체의 병력 12,500명에서 500명까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을 기준으로 하면 소규모에서 대규모 부대의 위치선정을 가능할 수 있다.

오위의 병력은 5위-25부-100통으로 50통의 기병과 50통의 보병으로 편성된다.

병종상으로는 기통과 보통으로 구분하나, 기통과 보통은 부여받은 임무에 따라 주통과 전통으로 나뉜다. 주통은 진의 방어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이고, 전통은 진에서 출전하여 적과 먼저 교전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구군진, 악기진, 팔진에 나타난 기정운용은 적과 먼저 접촉하는 부대를 정병으로 하고, 접촉처를 중심으로 하는 양익의 전력을 기병으로 부여한 것과 비교하면, 진의 방어를 담당하는 주통을 정병으로, 출진하여 적을 제압하는 전통을 기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을 쓰고 기는 쓰지 않을 때도 있고 기를 쓰고 정은 쓰지 않을 때도 있으며, 또는 기·정을 아울러서 쓰기도 한다. 전통의 병사가 피로하면 주통과 교대시키거나, 전통·주통을 함께 출동시키기도 한다.”⁴⁰⁾

『오위진법』 「용병편」에 따르면 전통과 주통 모두 기통과 보통 각 1통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수의 재량에 따라 그 병종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고, 전통의 전투력에 따라 주통과 임무를 교대하거나 전통과 주통 전 병력을 함께 운용할 수 있다. 오위진법의 기정운용은 장수의 응변에 따른 주통과 전통의 운용을 그 근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오위진법에 나타난 기정과 병력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열의(大閱儀)」편에 잘 나타나 있다. ‘대열의’는 오위진법에 나타난 부대훈련 절차로 부대 기동, 장수의 용병술, 전투상황에 따른 진의 변화, 병사들의 숙련도 등을 검열하는 최고 수준의 군사 의식이다. ‘대열의’의 훈련은 비교적 소부대 전투훈련인 용겹지세 3식과 대부대가 동원되는 승패지세 3식으로 구성된다. 용겹지세와 승패지세 형태의 내용은 오위진법의 정공법, 유군의 활용, 기정운용, 기병과 보병의 합동전술, 매복과 기만전술, 수극화의 원리에 따른 진의 변화와 반격(Counter Attack) 등에 해당

40) 앞의 책, 209쪽.

한다.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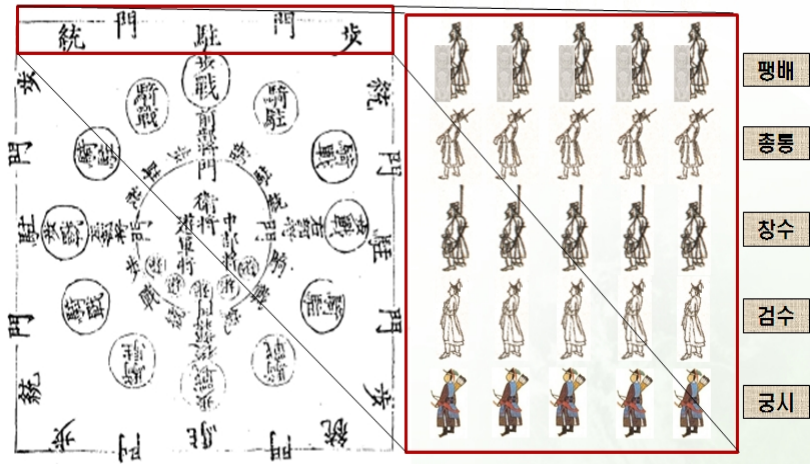
오위진법에 나타난 기정운용은 먼저 전통과 유군을 출동시켜 적과 교전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용겹지세 1형에는 전위 소속 5부의 전통과 전위 소속 유군 3명이 출동하여 전통이 정열하고 전통의 30보 뒤에 유군이 포진한다. 이후 전통과 유군이 협동하여 전투를 벌이고, 전통이 후퇴시에 유군이 후방을 방어하면서 본대로 귀환한다. 용겹지세 2형은 전통이 적군에 패할 경우 유군이 지원하는 절차를 서술하고 있고, 용겹지세 3형은 전·좌·우 3위의 증가된 병력으로 적진을 공격하고 방어하는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중국 역대진법의 기정운용법으로 볼 때, 용겹지세 3형의 절차는 모두 전통과 유군을 활용한 비교적 소규모 전투훈련으로 전통은 적이 진에 먼저 접근하여 주통(정병)과 접전하기 전에 적과 교전하는 기병의 역할을 하나 출전한 전통과 유군의 측면에서는 적을 패주시키거나 아군의 패주를 막는 유군이 기병의 역할을, 전통이 정병을 담당하고 있다. 용겹지세에 나타난 오위진법의 기정운용은 부대의 역할에 따라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승패지형은 용겹지세와 다른 기정운용을 보여주고 있다. 승패지세 1형은 용겹지세 3형과 연결되는 훈련으로 적에게 거짓으로 패주하여 후퇴하는 과정에서 본진의 주통과 후퇴하던 전통이 합동으로 적을 패주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승패지세 2형과 3형은 모두 상황에 따른 진의 변화를 훈련하는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승패지형에 나타난 오위진법의 기정운용은 처음에 부여하였던 주통과 전통의 임무를 장수의 응변에 따라 변화시켜 주통이 나아가 적을 격퇴하도록 임무를 변경하는 것이다. 이는 오위진법이 기존에 역할을 미리 정해놓은 역대 중국의 병력운용과 달리 장수의 응변에 따라 기정운용의 변화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대 중국진법에서의 유병은 오위진법의 유군에 해당한다. 구군진에서는 9개진에 균등하게 1통의 유병을 분속하였으나, 약기진과 팔진의 유병은

41) 진법과 「대열의」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은 김동경, 「조선초기의 군사전통 변화와 진법훈련」, 『군사』 제74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0, 126~130쪽을 참조할 것.

각각 4통이었다. 그러나 오위진법에서의 유군은 각 위에 5명씩 총 25명의 병력으로 편성된다. 또한 기병은 각 부에 2통씩 보병과 동일한 비율로 편제되어 기병의 병력 구성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 오위진법에서 기통의 편제와 유군의 병력이 증가된 이유는 기병중심의 군사전통과 관계가 깊다.



〈그림 11〉 일위방진과 외진의 병종배열

3) 방진을 통한 수비와 오진의 구조를 통한 기병의 기동력 강화

구군진, 악기진, 팔진을 적용하던 시대의 주력은 보병(步兵), 거병(車兵), 기병(奇兵)이다. 이 중 춘추시대까지는 거병이 중심이 되었고, 전국시대 이후부터 보병이 전장의 주역이 되었으며 기병은 보병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다. 전국시대 이후의 기병은 북방의 기마족을 군사력으로 도입하거나 그들의 기마전법이 활용되어 공격력을 신장시켰으나 병력면에서의 주력은 보병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⁴²⁾

42) 국방군사연구소, 『중국군사제도사』, 1998, 5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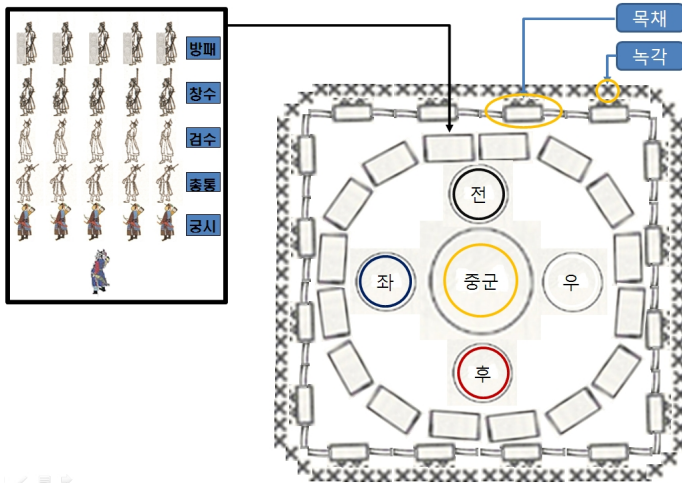
춘추시대에서부터 징병제도가 정착되어 주거단위 중심의 군사제도가 수립되었다.⁴³⁾ 농경사회에서의 징병 대상자는 대부분 농민으로 평시에는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전쟁이 임박하였을 때 징집되었다. 진-한시대에도 군현제 중심의 징병제를 표방하고 있었으나, 후한 및 삼국시대에는 징병제도마저도 실행되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제도가 문란하였다. 사회경제제도가 파괴된 시기에는 부분적인 모병으로 군대를 조직할 수 있었으나 이에 대한 훈련과 유지는 국가재정에 매우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고, 국가 간의 전면전에서는 사회제도가 유지되는 지역민들을 징병하여 전쟁에 임하였을 것이다. 모병에 의해 육성된 부대는 정예군으로써 정예보병과 기병을 담당했을 것이나 징병에 의해 모집된 대부분의 부대는 보병이었고, 이 보병이 군대의 대다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 훈련되지 않은 병사들이 갖는 전투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와 병사 개개인의 전투력을 발휘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장수의 명령에 의해 조직적으로 전투를 할 수 있는 진법이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진법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진이 개발되어 운용되던 시기의 전투양상과 당시의 사회구조를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다.

구군진과 악기진은 삼황오제시대의 진법이다. 구군진의 유래에서 살펴 보았듯이 당시 농경중심의 사회경제제도와 진법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력이 보병으로 구성되었다. 다만 각 소진의 유병은 중앙과 지방의 정예병으로 그 규모는 소진을 경우로 볼 때, 9통의 병력 중 1통의 기병에 해당한다. 같은 시기 악기진의 구조적 측면에서도 정예병에 해당하는 악기병 4기를 제외한 8위 8우의 병력 또한 보병으로 구성된다. 촉나라의 경우에는 주력이 보병이었으나 위나라의 기병에 대항해야했고, 팔진도상에서 기병을 별도로 표시하여 후부에 배치시킨 것은 팔진의 주 병력 또한 보병이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⁴⁴⁾ 이때 거병은

43) 주나라의 ‘궤리연향법’은 군사조직의 편제와 주거단위 행정조직을 긴밀하게 연결시킨 제도이다. ‘궤리연향법’과 같은 행정조직은 당시 인력 중심의 전투방식에 맞추어 행정조직을 통해 평시에 인력을 관리하여 위급시에 징병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위의 책, 41쪽.

44) 악기병의 유병은 진의 내부에 위치했다가 외부로 나아가 적진의 후방을 교란하는 역할

외진에 배치되어 적 기병의 접근을 막고, 공격시에는 보병의 진형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수행하였다.⁴⁵⁾



〈그림 12〉 녹각방진과 병력의 배치

을 맡고 있으나, 팔진에서의 유병은 팔진의 후방에 위치하여 적 기병의 후방차단을 막아 포위되는 상황을 막고, 기회포착시 적의 측방 및 후방을 공격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팔진도에서의 유병의 위치는 적의 포위를 막기 위한 지리적인 차단물을 나타내는 것으로 강이나 산을 배후에 둬으로써 적의 포위를 막는 형상을 하고 있다.

- 45) 조선시대 병거에 대한 모색은 신기전이나 화포를 쏠 수 있는 Station인 화력지원용 수레의 성격을 떠나 중국 역대진법에 나타난 수레는 공격시 사람이 올라타 말과 함께 전투를 지휘하는 전차(Chariot)를 의미한다. 이러한 전차의 개념은 수레주위에 방패와 창을 설치한 전투용 수레와 화포를 쏠 수 있도록 하는 전차의 개념으로 발전되나 그 경계가 모호한 실정이다. 노영구, 「18세기 전차 제작 논의와 운용 전법의 모색」, 『기술과 역사』 제2권, 서울: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사학회, 2001, 132쪽. 역대진법에서 나타난 병거는 공격용 전차와 방어용 수레로 구분할 수 있다. 전차는 병종의 일종으로 말과 함께 적진을 돌파할 수 있는 거병을 뜻하고, 녹각거병에서 볼 수 있듯이 진의 외곽에서 방어 진지의 역할을 하는 수레는 병참을 위해 군량이나 군기를 실을 수 있는 수레에 방패나 창을 달아 적의 접근을 막는 성벽의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병종의 측면에서 나타난 거병과 방어용 수레는 분리할 수 있으며, 거병은 기병전술의 확대와 함께 전장에서 사라졌으나, 병참용 수레는 화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병에 대응하기 위한 수비의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거병과 보병에 의해 방어되는 진은 매우 견고하나 진형의 변화가 매우 어려운 구조적 취약점을 가지게 된다. 특히 적 기병에 대한 측면 노출은 자칫 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그러므로 구군진, 악기진, 팔진의 구조적 특징이 방진이나 원진임을 주목해야 한다. 악기진이나 팔진이 5진으로 구성되어 5진법체제로 진을 친다면 각 진의 측면은 적의 기병의 공격을 받게 되거나 어느 한 진이 적에게 고립될 개연성이 농후하다. 또한 각진의 방어는 가능할 것이나 대장군이 위치한 중위의 방어를 위해서는 5진은 불완전한 구조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편제는 5진이었으나 진을 여덟으로 나누어 외곽을 튼튼하게 하고, 이후 적의 공격을 외진에서 일차적으로 방어를 하는 방법을 기정운용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진도(陣圖)상에 나타나듯이 악기진과 팔진의 외진 네 모서리를 정병으로 선정해 놓은 이유는 병력면에서 4방위가 8통의 병력을 보유한 것과 비교할 때, 네 모서리(사우위)의 병력은 4통으로 방어하고 있고, 진의 출입문 또한 사우위에 편중되어 있어 적의 공격이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우위의 병력은 내진 병력의 충원을 받아 외진에서 적을 격퇴하도록 진법을 통해 도식화한 내용을 “지축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같은 원리로 오위연진의 외진은 보병으로 구성되어 있어 방진형태의 진을 채택하고 있다. 외진의 외곽은 보병 주통이 맡아 방진을 이루고, 보병전통, 기병주통 그리고 기병전통은 보병주통의 방진 내에서 간진으로 포진하며 전·후·좌·후위의 중부 병력과 각위의 유군, 그리고 중위의 병력은 모두 원진으로 배치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외진은 방진, 내진의 오진체제 각자가 원진을 취하며 원진을 구성한 대부분의 병력은 유군과 전통(戰統)기병이다. 중위 또한 원진을 취하여 외진이 파괴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대장군을 보호하고, 오위연진의 네 모서리 지역을 허지로 삼아 병력을 배치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용겹지세와 승패지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의 밖으로 출동하는 각 위의 유군과 전통을 위한 기동공간을

두어 모서리에 위치한 영문출입이 자유롭도록 허용하는 구조이다. 오위연진의 구조가 오진법체계를 갖는 것은 군사적 측면에서는 고려말에서 조선초기에 이르는 조선의 위협이 북방에서 비롯되었고, 이로 인해 조선군의 중심 또한 기병에 무게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오진에 포함된 기병의 기동력을 통해 팔진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방법론의 측면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⁴⁶⁾

4) 음양오행사상의 수용을 통한 대형유지와 군율의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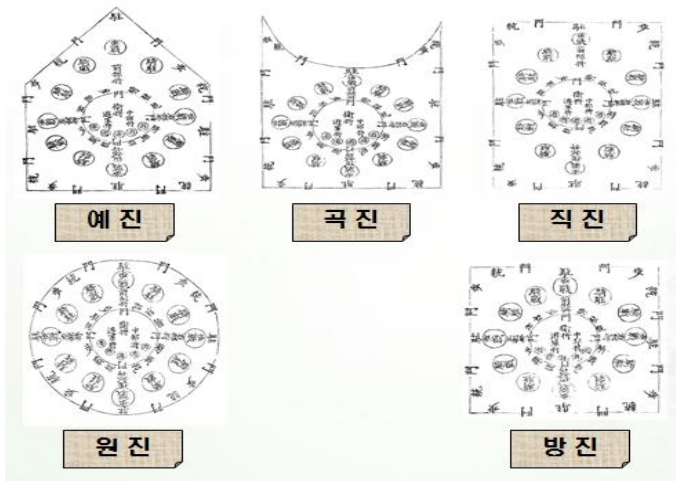
‘사문난적’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의 유학(유교)은 타 학문에 대한 포용성이 매우 약했던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오위진법의 해석이나 주해는 유교적이기보다는 주역이나 음양오행 측면의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다.⁴⁷⁾ 개국공신으로 불교를 타파하고 유교의 원리주의를 주장한 정도전조차 『진법』에서는 5부대 전투방법인 ‘오행출진가’, 오방색기를 통한 지휘법인 ‘기휘가’, 5명으로 구성되는 오(伍) 등 역대 중국진법에서 나타나고 있는 오행사상을 수용하고 있다.

정도전의 『진법』은 1군 5부대 체제를 고수하고 있고, 오진체제는 세종대의 『진도법』과 『계축진설』, 문종대의 『오위진법』에도 영향을 주어 조선전기 진법은 오진법체계를 수용하되, 하부편제 역시 5부대로 연결된 5위-5부의 발전된 구조를 갖는다. 5위-5부 구조는 중국 역대진법에도

46)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대부분의 위협은 북방에서 비롯되었다. 고려이후 거란과 여진족의 흥기 그리고 몽골의 침략 과정은 수렵민의 군사적 특성을 갖는 북방민족에 대항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한민족의 군사적 성향 역시 수렵민의 전통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어 수렵민과의 전쟁을 통해 기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용비어천가나 태조실록에 나타난 이성계의 기병전술의 모습은 몽골의 군사력으로 전락한 고려말기 이후의 군사적 전통을 보여주고 있으며, 조선초기에 기병의 역할 확대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7) 오위진법과 ‘하도낙서’의 연관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오행사상의 기원이라고 여겨지는 홍범구주나 팔괘에 그리고 주역에 대한 학자별 견해나 해석에 대한 연구 성과를 집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유학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병가사상에 대한 중국의 가치관을 또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앞서 설명한 오행중심의 세계관이 자연스럽게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타나지 않는 진법편제로 악기진의 영향에서 벗어나 ‘하도낙서’라는 음양오행사상의 원리에 가장 근접한 조선만의 해석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3〉 오행진 『오위진법』

『오위진법』은 병력구성면에서 오(伍, 5인)를 가장 작은 대형으로 편성하고, 5개의 오를 편성하여 대(隊, 25인)를 이루게 하며, 5개의 대를 모아 여(旅, 125인)라는 대형을 통해 여-대-오의 3단 구조를 모두 오행의 법칙으로 일원화시켰다. 상부편제는 1군을 5위로 각 위는 5부로 편성하였으나 각 부는 4통으로 나누어 1군-5위-5부-4통의 대규모 편제를 수립하였다. 위와 부까지는 오진을 유지하되, 4통을 두어 기병(2통)과 보병(2통)의 균형을 유지하였다. 청·적·황·백·흑색의 오방기를 통해 각 위, 부, 그리고 유군을 지휘하도록 하며, 지형이나 적의 진형에 따라 아군의 진도 예진·곡진·방진·직진·원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오행진(5가지 형태의 기본진)’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다.⁴⁸⁾

48) 오행진이란 원진, 곡진, 예진, 직진, 방진의 다섯가지 기본 형태의 진을 뜻한다. 오위진법 「대열의」편에는 오행진 이외에 조운진, 각월진, 어린진, 학익진 등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오행진은 습진을 위한 기본진에 해당하고, 전투시에 적용할 수 있는 진의 종류가 더 많았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당시의 전투에 있어 진이 중요시 되고

외진은 방진으로 팔진의 방진을 수용하여 땅(地)의 형상을 하고, 내진은 원진으로 악기진의 원진을 수용하여 하늘(天)의 형상을 수용하였다. 하늘과 땅은 본디 음양의 가장 중심에 있는 자연의 이치라는 원리를 통해 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편제는 오행사상에 입각하여 오진체제를 받아들여 전체적으로 음양오행의 이론을 진법에 적용한 가운데 ‘하도낙서’의 원리에 입각한 진법을 구상하였다. 음양오행사상이 조선전기의 진법에 수용되고 있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쟁의 승리라는 실리추구를 위해서는 유학의 범위를 넘어선 이전 세대의 지혜와 경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음양오행 사상이 국가적 차원에서 개개인의 의무를 규정한다면, 진법에서는 대형유지를 위한 이해와 군법과 규율을 유지시키는 사상적 배경으로 병사들이 지켜야 할 절대적인 덕목이 된다. 직접적으로는 군법으로 병사들에게 진의 유지를 위한 의무를 지우나 의무에 대한 사상적인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진법에서 나타난 군법과 군율에 대한 내용은 지휘체계의 확립을 통한 조직적인 전투와 군공에 대한 격려와 경계로 나눌 수 있다. 군법을 통해 지휘체계의 확립을 꾀하여 개인의 전투기술 보다는 조직적인 전투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장에서 아무리 적의 수가 많다 하더라도 적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죽더라도 끝까지 대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필요하다.⁴⁹⁾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형을 유지할 경우 수적 열세라는 불리한 점을 진(陣)과 지휘체계를 통해 우군이 지닌 우수한 기술, 사기, 그리고 화력을 응집시켜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만약 명령을 어기고 대형을 정돈하지 않으며 군율을 잃게 되면 전체의 병력이 위협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상적 통제와 일원화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경계하고자 하는 것이다.⁵⁰⁾ 그러므로 진에 있는 군사들로 하여금 기·각·쇠·북의

있음을 알 수 있다.

49) 빅터 데이비스 헨슨, 『살육과 문명』, 남경태 옮김, 서울: 도서출판 푸른숲, 2002, 469쪽.

50) 『국역 삼봉집』 권14, 조선경국전 下, 군정편.

신호절차에 따라 좌작진퇴의 방법을 익히도록 하여 지휘절차에 따른 대형의 움직임을 상정하고 있는 것은 진법이 개인의 전투력보다는 조직적인 전투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⁵¹⁾

또한 군법과 규율은 나약한 인간의 심리를 규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오(伍)에서 5인 중 2인을 잃으면 구원하지 않은 나머지 3인을 처벌하고 소대에서 4인을 잃거나 대대에서 8인을 잃었을 경우에 나머지 인원을 처벌하는 규정은⁵²⁾ 적과의 백병전에서 도망하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를 법으로 규제하여 같은 대형과 편제에 소속된 인원들로 하여금 공동의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죽음이 난무하는 전쟁의 위험한 상황에서 살고자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엄한 형벌을 세워 겁을 먹고 후퇴하는 것을 위압하여 병사들로 하여금 겁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용기를 북돋으면 살 수 있다는 인간의 심리상태를 이용한 것이다.⁵³⁾ 그러므로 장수를 잃거나 편제 내의 병력을 잃고 적장이나 적군을 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자신이 속한 대형의 구성원 및 장교와 합심하여 적의 인원과 장교를 잡은 것에 대해서만 군공을 인정하고 있는 군법은 개인의 능력보다 조직의 유지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음양오행 사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진의 구조를 이해시키기 위한 이론적 측면과 대형의 유지를 위한 의무적 측면이 된다. 소규모 대형들로 군을 편성하여 조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것이 진을 펼치는 목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형의 유지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진을 구사함에 있어 전투에서 개인 간의 협동을 고려하지 않고 전투에서의 전공을 탐하거나, 또는 임박한 전투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생기는 도망병의 발생과, 이러한 사태로 인해 대형이 붕괴되고 전장이 혼란해지며, 지휘체계의 마비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에 의한 패전을 막기

51) 『세종실록』권12, 3년, 7월 9일.

5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진도법』, 『병장설-진법』,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3, 258쪽.

53) 『국역 삼봉집』권14, 조선경국전 下, 군정편.

위해 음양오행의 이론을 통해 대형 유지를 위한 이치, 군법, 그리고 군율의 필요성을 이해시켜 지휘체계에 따른 일사불란한 조직적인 전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남명북원의 시기에 맞물린 조선의 건국, 여진의 반란, 계속되는 몽골과 명의 대립속에서 조선전기의 진법은 시대별로 당면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문난적’의 학문조차 수용되어야 했다. 『오위진법』은 기정운영의 법칙, 외진과 내진의 구성, 기병과 보병간의 균형, 오진법 체계를 통한 상부에서 하부편제의 일원화, 음양오행 사상을 통한 대형유지를 위한 이치와 군율의 이해 등으로 볼 때, 중국 역대진법의 장점을 고루 수용하였으나 기병을 중요시 하는 군사전통의 특성을 취하면서도 대병력 수용을 위해 오진체제의 구조를 단계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방진위주의 중국진법에 비해 구조적으로 그리고 사상적으로도 한층 발전되고 심오한 이치를 담고 있다.

4. 맺음말 : 진법에 나타난 오행사상과 오진법 체제의 의미

진법은 전투대형이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 시대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군사적 유산이다. ‘구군팔진’은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한족국가 수립, 영토개념 증대와 농경사회 중심의 ‘정정법’이라는 토지운영제를 군사적으로 구현하였고, ‘악기진’은 정예부대인 ‘악기’의 능력을 고려하여 ‘구군진’을 군사적으로 발전시켰다. 악기의 개념은 이후 제갈량의 ‘팔진’과 이정의 ‘육화진’으로 이어졌으나 각 시대의 병종과 전법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진의 형태나 편제가 구조적으로 변화되었다. 변화된 진법은 팔진이나 오진 또는 육진이라는 편제나 진의 구조가 보여주듯이 각 시대의 사회

구조와 병종 그리고 위협에 따라 변형되나 오행사상에 입각한 오진법 체계와 기정운용을 통한 전쟁의 승리라는 가치를 그 중심에 두고 있었다.

오행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연의 순리에 맞도록 사회구성원 모두 맡은 바 자기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는 사상적 배경이다. 사회제도가 파괴되어 그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에서는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왕의 권위와 권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법이다. 혼란한 춘추전국시대에 출현한 제자백가는 자신의 사상적 토대로 세상을 통일하고자 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사상은 모순에 의해 지속될 수 있으나 자연의 원리와 법칙은 모순 없이 수구해야 하는 그 자체인 것이다. 음양오행사상은 자연의 법칙을 강조함으로 인해 혼란한 시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사회에서도 천자에서 노예까지 거부감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사상적 배경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혼란한 시기에는 음양오행적 세계관이 강조되었다.

음양오행사상은 군사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병사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오방위, 오방색의 개념을 통해 중군 지휘관은 중간 지휘관에서 말단의 병사까지 간단명료한 지휘체계를 확립할 수 있고, 오행의 상생·상극의 원리를 활용해 진을 변형시킬 수 있으며, 오진법 체계를 통해 편제와 병력구성의 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병사는 오행사상에 의해 자신의 맡은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여 조직적인 전투력을 시현하는 것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군권을 가진 중군에 대한 방어와 중군 지휘관에 대해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전 병력이 남아 있어도 최고지휘관이 사라지면 진의 유지 자체가 불가능하고 지휘에 의한 조직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없으며, 진의 파괴될 경우 동원된 징집농민병들은 그저 학살을 기다리는 가축과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밖으로는 북원남명의 시기, 안으로는 혼란한 고려말의 정치적 과정에서 탄생한 조선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외부적으로는 왜구, 여진, 몽골,

그리고 떠오르는 명의 위협, 내부적으로는 사병혁파의 과정과 지방군의 흡수를 통한 군권의 확립이 시급했던 시기에 정도전이 선택했던 오진법 체계는 음양오행사상을 통해 전투와 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책무를 강조 하였던 것이다. 오진법 체계를 중심으로 조선초기 중앙군과 지방군의 복 속을 모색한 이유도 오행사상을 통해 전투와 군제를 일원화하여 임금을 위한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⁵⁴⁾ ‘정난의 역’으로 즉위한 태종 역시 정도전의 『진법』에 근거한 습진을 허락한 사실은 1·2 차 왕자의 난과 ‘조사이의 난’의 진압과정, 그리고 고개를 들기 시작한 여진족의 북방침입과 연관되어 있고, 대규모 몽골의 침략이라는 첩보에 시달렸던 문종대에 간행된 『오위진법』을 기반으로 중앙군과 지방군의 편 제가 개편된 것은 조선의 왕권이 지방에까지 미치고자 하는 의지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중앙의 군사지휘권이 지방에까지 체계적으로 전 달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힘과 함께 오행사상의 사상적 틀을 통해 각자의 위치와 의무와 한계를 깨닫도록 하는 이중의 노력이 필요했던 것 이다.

오위연진이 갖는 외진과 내진의 구조, 균일한 편제를 적용한 기병과 보병의 조화, 전통과 주통이 갖는 기정운용 등 군사적 측면에서 장점은 앞서 서술하였다. 그러나 역대 중국진법에서 오위진법이 취하고 있는 가 장 중요한 부분은 진의 구조, 외진과 내진의 관계, 하도와 낙수의 원리 등 병서를 통해 전해지는 부분뿐만 아니라 오진법 체계로 표현되는 오행 사상으로 볼 수 있다. 조선전기는 전투대형, 지휘, 중앙군 편제와 지방군 의 구분을 위한 사상적 배경의 중심에 오행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이다. 그러므로 오위연진에 나타난 군사적 특징과 전법, 궁위제도, 오위

54) 태조 3년의 군제개혁은 정도전이 『진법』의 개정 이후 지방군의 진법훈련을 모색함과 아울러 의흥삼군부의 인원을 1사·5령·5사마 체제에 맞도록 조정한 조치이다. 이 조치는 오진법 체계를 통해 인위적으로 태조대에 중앙군을 재편한 것으로 건국초기 군권을 확립과정에서 수행된 조치로 인식된다. 이에 관한 내용은 김동경, 「정도전의 『진법』과 태조대 군사 력 재건」, 『한국문화』 제53권, 서울: 서울대규장각 한국학연구소, 2011. 참조할 것.

도총부(오위제도) 등의 각종 부대의 편제문제, 그리고 『경국대전』에 나타난 중앙군과 지방군의 상관관계의 이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각도에서의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3.2.12, 심사수정일 : 2013.5.14, 게재확정일 : 2013.5.22)

주제어 : 진법(陳法), 구군진(九軍陣), 악기경(握機經, 握奇經), 오위진법(五衛陣法), 팔진(八陣), 육화진(六花陣), 하도(河圖), 낙서(落書), 오위-오부(5衛-5部), 오위-오부-사통(5衛-5部-4統)

<ABSTRACT>

Special Structure of the Ancient Jinbup and the Owiejinbup

Kim, Dong-kyoung

Jinbup is a military formation, but it reflected the society at that time. The Gugunpaljin showed military aspects for expansions of territory and agricultural systems. The Akgijin was developed to build the special forces from the Gugunpaljin. Later, principles of the Akgijin applied to the Paljin (8 unit formation) and the Yukwhajin(6 unit flower-shaped formation), but they were developed differently with each other as the society required. The five important key principles continued to remain with the developed Jinbups to maintain the structures and systems of the society.

Among the important things in the 5 principle were philosophic ideas that influenced all members of society to do their duty to maintain their society. At that time of social disorder, its values didn't work. Therefore, it required each members to follow the king's authority. So all the philosophers and scholars at the time of the civil wars did their best to unify the whole nation under the unified philosophy. Therefore the 5 fundamental principles from Han Dynasty were adopted as a unified idea at that time.

The 5 elements have pragmatic values in military operations. With 5 colors and 5 flags of the 5 elements, soldiers could easily follow the commander's orders and the commander could command his troops effectively. These were possible by the change of formations. The most important part in the 5 principles of military operations is that it allows each soldier in the formation to do his duty and obey the commander's order, so the battle could proceed systematically as the commander wished.

Key Words : Jinbup, Gugunpaljin(9 unit formation), Akgijin, Owiejinbup, Paljin(8 unit formation), Yukwhajin(6 unit flower-shaped formation), Hado, Naksu, the five-five formation system, the five-five-four formation structure

